

고령 장애인의 체력단련 프로그램 이용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Physical Rehabilitative Programs for Older Adults with Disability

전 경 화

임 병 우*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Kyunghwa Jeon

Byungwoo Lim

Division of Social Welfare Sungkyul University

(초록)

본 연구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복지 실천현장에서의 효과적이고 차별화된 체력단련 프로그램의 접근 방법 및 정책 대안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자는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장애인복지관의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지닌 55세 이상 고령자 10명이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 근거이론방법의 절차를 따랐으며, 면담은 회기마다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5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 분석은 개방코딩을 통해 속성과 차원을 발견해나가는 작업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137개의 개념, 36개의 하위범주, 및 1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에서는 범주와 하위범주를 연결시키기 위한 패러다임의 구성요소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현상, 그리고 중재적 조건, 작용과 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자조의식 및 정체성 형성”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핵심범주로는 “지지체계 및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소통을 통한 자조적인 참여”로 나타났으며,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유형을 분석한 결과 만족형, 기대형, 불만형의 3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고령 장애인의 삶에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고령 장애인의 권리나 자기결정, 그리고 당사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주제어 : 고령 장애인, 체력단련 프로그램, 근거이론

* 교신저자,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임병우 교수 (e-mail: leuyn@hanmail.net).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effective and distinctive physical fitness programs for older adults with disability. This study also intended to find a way of approaching to the programs and alternative policy. The participants were 10 persons who were at least 55 years old, were physically disabled, and had brain lesions. They were interviewed at least five times, each one lasting about 1.5 hours.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by the grounded theory. Over 130 concepts were from the initial open coding, while the axial coding found out a number of components such as cause and effect, contextual and conciliatory conditions, phenomenon, and action and interaction. The main category was “active participation through communication based on supporting system and owner spirit,” and three types of ‘satisfaction’, ‘expectation’, and ‘dissatisfaction’ were classified in the category.

Key words : Older adults with disability, Physical fitness programs, Grounded theory

I. 서 론

현대사회의 복지는 과거의 빈곤에 대응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배분적인 사회정의의 통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평생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쉼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노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상화(normalization) 관점에서 체력단련은 장애인의 건강에 치료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자립성을 강화시켜 사회참여와 사회적응의 기회를 넓혀준다. 고령 장애인은 고령 및 장애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으며, 이들에게 체력단련이란 신체적인 재활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지만, 잔존기능의 향상을 사실상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인간의 평균수명이

100세가 될 때 고령 장애인은 거의 반평생을 장애의 상태로 노년기로 보내야할지도 모른다.

근래 스포츠센터와 같은 체력단련 시설이 지역사회에 늘어나고 하지만,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미흡한 실정이며, 게다가 고령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장애 인식의 부족으로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 장애인의 체력단련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그들의 시설 이용에 따른 고충이나 문제점을 비롯한 세부사항을 심층면접으로 얻고자 했으며, 그들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근거이론에 의해 분석하여 실체를 이해하고자 했다.

그동안 체력단련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스포츠 분야에서 다루어졌으며, 사회복지 영역에서 고령 장애인의 체력단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 장애인들이 재활 목적으로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

을 토대로 사회복지 관점의 이해를 확장시키고 동시에 향후 고령 장애인을 위한 복지 실천현장에서 그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이고 차별화된 체력단련 프로그램의 접근방법 및 정책적 대안을 개발하는 근거자료의 제공에 두었다. 본 연구의 중심 문제는 고령 장애인의 체력단련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어떠한지를 고찰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고령 장애인의 체력단련에 대한 경험을 질적 연구를 통해 파악하고, 세부적인 경험들을 도출하여 당사자들의 경험에 근거한 실제 이론을 개발하고,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서 체력단련을 통한 재활분야의 사회복지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II. 이론적 고찰

1. 고령 장애인의 개념

고령이란 나이가 많은 상태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 즉 고령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고령자라는 용어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장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를 통칭할 때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권중돈, 2011). 곧 고령(자)의 정의에 포함된 주요 개념들은 연령이 적어도 55세라고 정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활용하여 고령의 개념을 55세 이상의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장애인이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칭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장애인의 정의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등을 준용하고 있다. 첫째, ILO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결함의 결과로 적당한 직업을 확보·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을 정도로 손상을 심하게 받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둘째, UN의 장애인권리선언에서는 선천이든 후천이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의 모두 또는 일부를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셋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는 ‘정신적,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의에 포함된 개념들을 정리하면 질병에 의한 손상, 기능장애, 능력 장애, 사회적 불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고령(자)과 장애인은 나라와 문화, 세대에 따라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그 정의마다 약간씩 다른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 장애인의 조작적 정의를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갖고 있는 자로 55세 이상이며, 질병이나 질환, 사고에 의한 손상이나 기능장애, 그리고 기능장애로 사회적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 고령 장애인의 특성

통계청(2017)에 의하면, 2016년도 등록 장애

인은 250만 명 이상으로 전체인구의 거의 5%를 차지하고 있다.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2000년 2.0%에서 근래 2.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약 100만 명으로 40%에 육박하며, 연령별로는 50대, 60대, 70대가 각각 전체 장애인의 20% 이상씩을 차지할 정도로 고령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 등록 장애인 중 중증에 해당되는 장애인 비율도 거의 1/3을 차지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장애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 장애인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고령 장애인에 대한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의 접근, 즉 이중적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다른 연령대의 장애인보다 고령 장애인의 경우 신체, 심리, 경제, 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임종호 · 이영미, 2010).

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인과 비교해도 매우 열악하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년도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가구의 최소 생활비는 월평균 154만원인데, 장애인의 개개인의 월평균 평균소득은 80만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의 취업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38% 정도로 전체인구의 참여율 62%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고령의 상태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낮다(김호진 · 최종철 · 양수정, 2013). 이와 같이 고령 장애인이 취약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적 연구 자료가 미흡하여 고령 장애인을 지원하는 정책의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령 장애인은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는 고령에 따른 여러 가지 생리학적 기능저하로 인해 장애를 얻은 사람들, 즉 고령으로 인해 심신의 기능이 약화되어 장애를 갖게 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장애를 지닌 상태에서 고령의 시기를 맞이하는 경우이다(김용섭, 2016). 전자는 장애문화를 또는 같은 장애를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후자는 가족과의 연락두절이나 독신 등의 이유로 장기적인 독거생활을 유지해 온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다. 또한 그들 대부분이 시설생활이나 폐쇄적인 생활로 인해 생애주기에 따른 적절한 사회경험이 부족하지만, 장애상태로 살아온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변화가 발생하기보다는 고령 상태에서도 이전의 삶을 잘 유지하며 장애수용과 적응력은 더 높은 편이다(임종호 · 이영미, 2010).

3. 체력단련

체력이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할 신체 및 정신적 능력, 그리고 생활환경에서 오는 각종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자기방어 능력 등으로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행동능력을 의미한다. 단련이란 흔히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함을 의미하는데, 체력단련이란 마치 체력을 쇠붙이처럼 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다. 이 개념을 고령 장애인에게 적용하면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켜 장애

상태로 인해 초래된 불편함이나 불이익 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의 상태에서 질환이나 외상 등에 의해 발생한 신체적 손상 때문에 임상적 처치를 받은 다음 손상부위의 기능적 회복을 위해 수행되는 재활 및 체력증진을 위해 처치하는 과정도 체력단련이라고 부를 수 있다(O'Sullivan, Schmitz, & Fulk, 2014). 본고에서의 체력단련은 특정 질환이나 손상에 따른 기능장애를 최소화하거나 기능장애를 회복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고령 장애인에게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고령의 상태에서 신경계나 골격계 질환으로 장애가 생긴 자의 재활을 담당하면서 장애상태가 악화됨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III. 연구방법

1. 근거이론의 적용

근거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사회심리학의 한 갈래로 이해된다. 이는 특히 사회심리학 입장에서 인간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와 의미 있는 상징을 관찰해야 하며,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인간이 행동과 관련된 의미에 근거하여 반응하며, 또 상징적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홍현미라 · 권지성 · 장혜경 · 이민영 · 우아영, 2013). 근거이론의 목적은 연역적 접근인 실증적 연구보다도 귀납적 접근 방법에 의해 사회현상을 분석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신경림 · 조명옥 ·

양진향, 2013). 귀납적인 특성은 특별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범주를 개발하며, 관심 있는 현상의 특성을 파악하여 핵심변수를 하나 이상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귀납법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규칙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발견되는 원칙에 의해 구성되는 규칙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성남, 2007).

본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근거이론 방법으로 Strauss와 Corbin(1994)이 제시한 접근 방법을 기초로 시도했다. 이는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어떤 현상에 대해 귀납적으로 이끌어낸 하나의 이론을 발전시키는 질적 연구 접근이다. 즉 이는 그 현상에 속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이론을 정립하는 것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며, 연구자의 민감성을 바탕으로 이론적 표본, 지속적 비교방법, 코딩, 메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론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2. 연구자의 준비

질적 연구자는 자신의 개인적 선입견, 가치, 신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자료를 수집하기 전 그리고 연구과정 중에서 필수사항이다. 특히 연구자의 배경이나 경력은 연구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면담기술은 자료수집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신경림 등, 2013; 홍현미라 등, 2013). 질적 연구자는 연구자 자신이 도구이며 연구의 민감성이 요구되는데, 본 연구자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 안양시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여가문화 프로그램 및 체력단련과 관련된 재활프로

그램을 담당한 경험이 있다. 이용자의 주 연령대는 30대부터 80대 사이의 고령 장애인이 대부분으로 고령 상태 장애인들의 생각과 감정들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 또 본 연구자는 사회복지 현장의 실무자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장애인에게 체력단련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역시 55세 이후 고령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미비함을 체감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고령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적 대안이 형성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연구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면접대상자는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복지관의 체력단련실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인 남성 5명과 여성 5명이었고, 연령은 55세부터 80세 사이였다. 면접은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시간 전후로 본 연구자가 직접 실시했으며, 본 연구자와 면접대상자는 주기적으로 복지관에서 만나고 있어서 이미 신뢰가 형성된 관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면담을 통해 신뢰관계의 형성 여부를 다시 확인한 후 면접을 실시했는데, 면접 내용은 녹취와 메모를 했고, 그리고 녹취된 내용을 필사한 후 분석에 이용했다.

면접은 2014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면접이 진행되기 전에 연구자에 대한 소개, 연구목적, 비밀보장, 면접내용의 활용에 대해 설명한 후 면접대상자로부터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초기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또는 ‘어떻게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었습니까?’로 시작했고, 면담시간은 1회에 1.5-2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면접대상자 당 5회에 걸쳐 심층면담과 관찰을 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 장애인의 체력단련 프로그램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로서 신뢰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되고자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및 중립성(neutrality)의 4가지 측면을 따랐다.

4.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심층면담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자료를 얻는 면담 과정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생애 전반에 걸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며, 대화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들을 연구 참여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그 참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 목적으로 연구 참여자를 지나치게 착취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알려야 한다. 본 연구에 있어 연구의 목적, 내용, 연구방법 등을 설명하고, 참여자의 익명처리와 비밀보장,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이유로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고 권리보장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한 후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면담 이후에도 언제든지 참여자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 대한 소개와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연구 도중 답변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Orb, Eisenhauer, & Wynaden, 2001).

IV.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모두 10명(남 5명, 여 5명)이었으며, 연령대는 50대 3명, 60대 3명, 70대 3명, 그리고 80대 1명이었다. 그들의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인 3명, 뇌병변 장애인 6명, 그리고 지체와 신장의 중복 장애인 1명이었으

〈Table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성별	연령(세)	장애유형	장애등급
1	여	55	지체	2급
2	여	60	뇌병변	2급
3	여	60	뇌병변	3급
4	여	56	뇌병변	2급
5	여	55	뇌병변	2급
6	남	68	지체	2급
7	남	76	지체	2급
8	남	71	뇌병변	4급
9	남	80	지체, 신장	2급
10	남	70	뇌병변	2급

주. 사례7만이 독거 상태이며, 가구당 평균소득이 월 3백만 원 이상인 경우는 사례5와 사례6이었음.

며, 장애 등급은 2급에서 4급에 해당되었다. 그들 중 1명만이 독거 상태였으며, 나머지는 배우자나 가족과 동거하고 있었다(<Table 1> 참조).

2. 개방코딩 결과

본 연구는 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개념을 분리하고 명명하였으며, 유사한 개념끼리 하위범주로 묶고, 다시 범주화하는 과정을 수행했다. 그 결과 137개의 개념과 36개의 하위범주, 1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과적 조건: 체력단련 프로그램 이용의 필요성 인식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들로 구성된다(Strauss & Corbin, 1994). 본 연구에서는 중심 현상의 원인으로 ‘이용의 필요성 인식,’ 그리고 하위범주로는 ‘독거준비’와 ‘운동의 필요’가 도출되었다(<Table 2> 참조). 장애를 갖게 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몸이 쓰러진 후 비관적 심리상태가 되며, 또 시간이 흐르면서 재활의 방법을 찾게 되는 장애수용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장애를 입은 후 3년이 지나면 재활이 어렵다고 하여 병원이나 치료센터에서는 치료를 거부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이용자들은 실망감과 자포자기의 심리 상태로 외부와 단절의 시기를 겪기도 하지만, 여생의 건강 유지 및 장애 상태의 악화 예방을 위해 운동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Table 2〉 인과적 조건의 범주별 속성 및 차원

개념의 속성 및 차원	하위범주	범주
- 아들이 결혼하면 혼자 살아야하므로 건강관리 필요함	독거준비	체력단련
- 유명한 병원을 다녀도 별진전이 없었음	운동의 필요	프로그램
- 집에 있으면 TV만 보게 되며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음		이용의 필요성
- 예방차원에서 운동을 함		인식

2) 중심현상 분석: 체력향상

장애인 당사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의 이웃과 가족들로부터 체력단련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체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Table 3〉 참조). 장애인들은 마치 ‘운동중독’이라는 신조어로 표현해야 할 정도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서 살아간다. 그들에게는 운동이 생존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귀찮거나 싫어도 해야만 한다. 오랜 기간 꾸준히 하다 보니 건강이 점차 호전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초기에는 억지로라도 해야 하

〈Table 3〉 중심현상의 범주별 속성 및 차원

개념의 속성 및 차원	하위범주	범주
- 장기적으로 운동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짐	건강해짐	체력향상
- 스트레칭을 할 때와 안 할 때, 컨디션 차이가 큼		
- 처음 쓰러질 당시보다 더 건강해졌고, 말도 어눌했는데 지금은 잘 함		
-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려 함		
- 이용한지 4년 정도 됨	이용한지 오래됨	
- 6년째 이용		
- 2007년도부터 이용		

는 운동이었지만, 점차 즐거운 일이 되면서 나름대로 보람도 얻는다. 체력단련을 통해 다른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낮아지므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홀로 비장애인 집단 안에 있었다면 쉽게 포기하고 타인과의 비교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었겠지만, 장애를 지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긴 시간을 지나왔다고 한다.

3) 맥락적 조건: 환경과 구조적 조건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이용에 관한 내용 중 ‘이용환경 및 편의성’에 관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본 결과, ‘이용시간’, ‘이용료’, ‘이용인원’, ‘이용기구’, ‘이동편의’, 및 ‘식사문제’의 하위 범주로 정리할 수 있었다(〈Table 4〉 참조). 복지관의 서비스 중 유일하게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체력단련실이다.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이용료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주민센터나 여성회관, 문화센터에서도 그 정도를 지불하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서 그와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다수가 집중되어 이용하는 시간대가 없고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간과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 인원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었다.

체력단련실에는 20여 종 이상의 기구가 총 40여 개 구비되어 있다. 다만 기구 이외에 근력검사나 기타 체력에 관련된 검사를 주기적

〈Table 4〉 맥락적 조건의 범주별 속성 및 차원

개념의 속성 및 차원	하위범주	범주
- 이용시간이 자유로워 좋음 - 스트레칭 지도를 오전에 20분 정도 해줌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음	이용시간 편의성, 충분성	
- 사물함은 처음 1만원이며, 환불 가능하며, 더 필요한 자는 월 2천 원 추가 지불 후 한 칸을 더 사용 가능하며, 그 비용은 불우이웃 돕기에 이용되므로 편한 마음으로 지불함 - 트레이너가 상주하지 않아서 이용료가 비싸다고 생각하며, 선납을 해야 하며, 이용료가 부담스러워 이용하지 못한 자도 있음	이용료와 부담감	
- 80명 정도 이용하지만, 시간대별 이용인원이 달라서 편하게 이용하며, 오전 평균 20명 정도임 - 화/목요일은 많고 다른 요일은 타 프로그램 이용으로 사람이 많지 않음	이용 인원의 적절성	이용환경 및 편의성
- 체력단련실은 안마의자 사용자가 많음. - 자전거는 팔 다리를 함께 사용하여 도움이 되지만, 한 손으로 이용 가능한 기구가 있으면 좋겠음 - 운동기구가 많아도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 걷기 보조기구와 런닝머신, 자전거, 삼각대, 팔돌리기, 안마기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체력검사도 해 줌	이용기구 만족/불만족	
- 착한수레, 셔틀, 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 편하며, 일반버스는 넘어질 수 있어서 무섭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음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하니 편함	이동편의 (접근성)	
- 예전에 한양대에 가서 체력검사와 점심식사도 제공해서 좋았음 - 오랜 기간을 이용하다 보니 이용이 편리해지고 추억이 많음. 예전 관장님이 매일 와서 먼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과를 준비해 나누기도 했음	추억이 있음	과거이용 경험
- 여기는 모두 식구 같은데, 비장애인 이용시설은 불편하며, 서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움 - 트레이너의 지도를 이해하지 못해 진도를 따라가기가 어려움 - 여성회관이나 동사무소 체력단련 시설은 비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 가지 않으며, 보건소에서 운동을 했는데, 비장애인들과 함께 하다 보니 너무 붐비고 불편했음	비장애인과 함께하기 어려움	비장애인 시설 이용경험

으로 받고 싶어 하며, 특정 장애부분에 대한 재활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동편의 면에서는 일반 대중교통보다는 시설의 셔틀 이용이 오히려 더 낫다

고 인식한다. 지역사회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배려심이 매우 미흡함을 느낄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시설의 역사를 지나온 사람들이기에 나름대로 회로애락의 순간들을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좋았던 순간들을 반추하면서 이야기보따리를 풀었다. 장애인이 되면서 제2의 삶인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추억의 장’이 되고 있다. 한동안 이용의 효율성과 이용료의 차이가 없어서 타 시설을 이용해 보았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력단련실은 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장벽이었던 것이다. 비장애인의 그릇된 선입견,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려는 행동들, 언어적·비언어적 무시, 진도를 맞추기 힘들 등의 편하지 않은 환경은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는 벽을 형성하고 있었다. 비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는 자존심 때문에 그들은 동료가 있는 장애시설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다.

4) 중재적 조건: 상호작용전략의 촉진 및 방해 조건

장애인을 위한 지지(지원)체계 존재는 안도감을 갖게 해준다. 복지에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드러나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나마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은 도움의 손길을 쉽게 펼칠 수 있지만,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장애 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과 항상 접하는 직접 서비스의 현장이나 가족들의 지지는 이들에게 너

〈Table 5〉 중재적 조건의 범주별 속성 및 차원

개념의 속성 및 차원	하위범주	범주
-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잘 지내는 것이며,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	가족관계	지지 체계
- 가족들이 주말에는 청소를 도와 주기도 함	(가족간의 배려)	
- 손자를 보고 있어서 운동할 시간이 많지 않음		
-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알아서 지도를 해주어 도움이 됨	직원 역할	직원 역할
- 담당 선생님이 친절해 믿고 의지함		
- 운동기구를 사용할 때 자상하게 발을 고정시켜주거나 잘 도와줌		
- 바우처 사업으로 방문 스트레칭 지도해줌	제도	제도
- 일반적으로 시설은 깨끗하고 개인사물함이 있어 만족함	이용만족 (이용시설 만족)	긍정적 기대
-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음		
- 대기실로 아침에 오면 차 한 잔 마실 수 있고, 샤워도 할 수 있어 좋음		
- 점심식사비가 2,500원이어도 매일 오니까 부담되어 도시락을 챙겨옴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지원 필요
- 자녀가 돈을 벌기 때문에 수급권자가 아니며, 차상위도 아니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무나 중요한 1차적인 관계망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하위범주로 ‘가족관계’와 ‘직원역할’, ‘제도’가 도출되었다(<Table 5> 참조).

장애인의 가족은 가족 내에 장애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도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데, 이는 비장애인 가족이 실감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장애인 스스로도 자립의 의지를 보일 때 짐으로

만 여겨지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감소될 수 있다. 복지시설을 찾아오는 장애인들은 담당 직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는데, 직원에 대한 장애인들의 마음은 생명 유지에 혼신을 다하는 의사, 거의 주치의 수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설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책임의식을 더욱 돈독히 다질 필요가 있다.

이용 장애인에 대한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은 만족도를 높여준다. 체력단련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방문하더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심한 배려이다. 편안한 환경제공은 이들의 자존감을 높여 줄 수 있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는 그 사회,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수준을 나타내기도 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갈등이 초래되는 중대한 문제가 되기도 하는 이용료는 조절하기가 어렵다. 재정적인 재원의 부족과 채울 수 없는 이용자의 경제적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5) 상호작용전략: 체력단련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조정전략

상호작용 전략에 관한 범주 내용은 <Table 6>에 요약되어 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민, 즉 이용등록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장애인이기에 비장애인들보다 더 용이한 방법이 필요하지만, 휴대폰 문자공지에 익숙하지 않아 등록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현재의 접수방법이 시설기관의 입장에서만 편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용 장애인에게는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일 것이다. 시설기관의 행정이 다수의 의견과 다수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어서 소수의 불

편한 점은 무시될 수 있으며, 어느 특정인만을 위해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재원 조달의 문제는 매우 예민한 부분이며, 무료 점심제공은 기관의 예산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러한 서비스 전달을 위한 자원연계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현재는 무료 점심제공이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에나 가능할 뿐이다. 직원의 불친절, 인력부족으로 인해 담당자를 사회복지무요원으로 배치할 때의 문제점, 안전 불감증, 사고 시 책임소재에 대한 이용자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시설과 직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 간의 소통이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당사자들 간의 규칙과 기준을 알고 이용할 때 서로에게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본 업무 매뉴얼을 무시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6) 결과: 조건과 전략에 위한 재구성

시설을 이용할 때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이용자는 감사의 마음과 시설에 대한 애착을 지니고 있다. 또 당사자인 자신들이 시설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내면의 책임감도 있고, 역시 자조 의식과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다(<Table 7> 참조). 체력단련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정이 들어 있는 시설을 또 하나의 삶의 터전으로 여기면서 여생을 가능한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어 한다.

이러저러한 사건과 추억을 되새기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주 하였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이제까지 함께 지내왔던 시간들이 이들에게 매우 소중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Table 6〉 상호작용 전략의 범주별 속성 및 차원

개념의 속성 및 차원	하위범주	범주
- 매달 새로 등록하는 것이 불편함 - 접수 시 이용료 내는 기간이 너무 짧고, 주말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접수 일자를 미뤄주어야 함	공급자 위주의 행정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셔틀 노선 변경을 건의했지만 개선이 안 되며, 셔틀이 복지관에 좀 더 일찍 도착하면 좋겠고, 오랜 시간 운동하고 싶음 - 실내 온도가 싸늘하니 환기를 미리 시키고, 난방도 미리 켜 놓으면 좋겠으며, 대기실 청소 잘 해주길 바람	이용환경의 불편	이용환경의 세심한 변화필요
- 선생님이 너무 자주 바뀌고 있으며, 개인별 트레이너가 필요함 - 시각장애인들과 자주 부딪히는 등 함께 공간을 사용하기 어려워 장애별, 연령별로 모집하면 좋겠음	요구사항	
- 담당자 교육 매뉴얼 필요함. 직책이 있다고 큰소리 칩 - 직원들이 이용자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중재하지 않음 - 담당 사회복지사요원이 있지만, 책을 보거나 졸고 있으며 책임 있게 도와주지 않음 - 직원들이 인사를 잘하고 많이 웃어주면 좋겠음	직원에 대한 생각	직원의식의 변화필요
- 장애인이라 편하고, 가족 같고, 모두 친구이며, 항상 오는 사람들이라서 만나면 즐거움 - 새로 온 사람은 가끔 있는데, 적응을 잘 못해 오지 않은 경우가 있어 안타까움 -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자들이 자조모임으로 회비를 내며 문화체험을 함	동료의식과 자조모임	당사자 간의 소통 필요
- 시설은 좋지만 직원을 포함하여 기득권층의 이용자, 보호자들이 못마땅함 - 아침부터 오자마자 샤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탈의나 착의 시 혼잡함	기득권 층 형성과 이용자 간 문제	
- 항상 사고 위험이 있어서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됨 - 도와 줄 사람이 꼭 필요하며, 안전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며, 상시 안전을 위해 책임 있는 직원 필요함 - 만약 체력단련실 안에서 사고발생 시 기관에 책임도 있음 - 규칙과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이용자를 무시하는 것임	안전성, 책임성 및 인권	사고예방과 인권존중 의식

싶다는 마음을 비추었다. 불만을 표현할 때는 주인의식이 싹터있었고, 그 주인의식에 의
 그 이면에는 스스로 시설을 아끼고 프로그램 해 프로그램을 자립적으로 만들어가야 더 활
 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성화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Table 7〉 결과의 범주별 속성 및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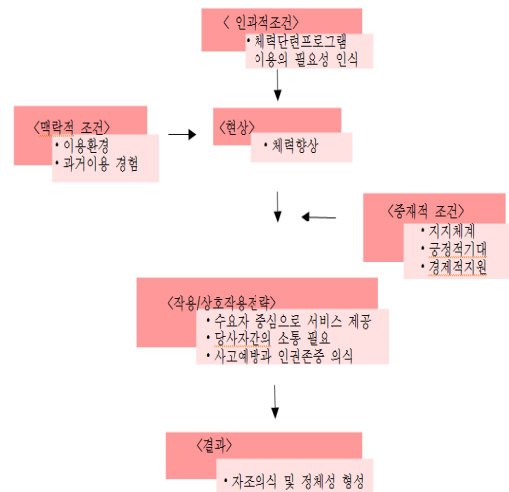
개념의 속성 및 차원	하위범주	범주
- 몸이 불편해도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함 - 욕심은 끝이 없으며, 현재에 감사함 - 우리를 위해 생긴 시설이므로 우리가 지켜야 함 - 대기실도 깨끗이 사용해야 함 - 아껴서 사용해야 함	감사의 마음과 주인의식	자조의식 및 정체성 형성
- 운동을 하면 마음도 편해짐 - 같은 장애인 동료들이 많아 좋고 위로를 받음	심리적 안정	

존재감이 형성된다고 믿고 있다. 장애 초기에는 무엇보다도 재활의 목적이 우선이었지만, 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체력단련 프로그램이 몸에 배게 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마음까지 편안해짐을 알 수 있다. 비장애인 시설보다 더 선호하는 이유는 같은 장애인들이 모여 서로 위로가 되고 이해한다는 점에 있다. 이는 그들만의 문화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눔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인 것이다.

3.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구조분석

1) 축코딩 분석

축코딩은 현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위해 개방코딩을 하는 동안 분해시켰던 자료를 다시 조합하는 과정이며, 이는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계속 발전시키고, 범주를 속성과 차원에 따라 하위범주로 연결시키고, 또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범주들이 서로 교차되고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Strass & Corbin,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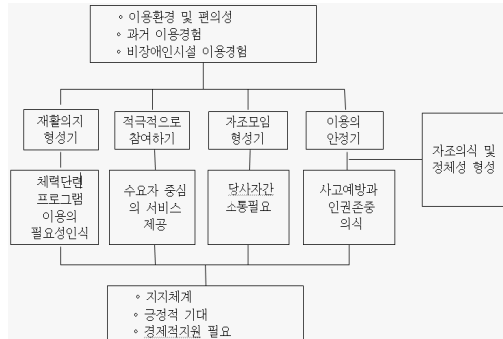


〈Figure 1〉 체력단련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한 인과적 조건,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이나 상호작용 전략, 결과들 사이의 관련성은 <Figure 1>과 같다.

2) 과정분석

과정분석이란 과정과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하는 작용이나 상호작용의 연속적인 연결을 의미한다. 재활의 주체가 장애인 자신이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이해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가 발생한 후 이를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응용하고자 한다. 체력단련 프로그램 이용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재활의지 형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자조모임 형성’, 및 ‘이용의 안정’의 4단계로 나타났다. 각 단계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 <Figure 2>와 같다.



〈Figure 2〉 체력단련프로그램 이용경험 과정

(1) 재활의지 형성기

장애인이라는 삶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가치 및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는 시기이다.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서 사회로 한걸음 내딛게 되며, 절망으로부터 벗어나 무언가에 도전해 보려는 의식의 전환이 생기게 된다.

(2)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이용 횟수가 늘어나면서 더 편하고 즐겁게 이용하기 위한 생각이 발전하는 시기이다. 불편한 것에 대한 인식과 요구사항들이 발생한다. 이용 시 모든 것에 만족할 수는 없어서 다양한 면에서의 불만이 표출되지만, 개선의 욕구가 이들로 하여금 당사자로서의 목소리를 내게 한다.

(3) 자조모임 형성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용하다보니 동료의식이 생기게 되고 집단이 형성된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또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기초가 되는 시기이다. 당사자들 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스스로 고쳐야 할 부분을 찾게 되고, 때로는 당사자들 간의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이 무렵에는 기득권층이 형성되면서 집단을 이끌기도 하지만, 소수의 이용자들이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

(4) 이용의 안정기

새로운 가치 및 역할이 주어지면서 체력단련 프로그램 내 문화가 생성되며, 주인의식이 확대된다. 이용편의에 대한 욕구를 넘어 안전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존중, 행복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4. 가설적 유형화

1) 지지체계 및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소통을 통한 자족적인 참여

연구결과 ‘지지체계 및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소통을 통한 자족적인 참여’라는 핵심범주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영위해온 자들이었다. 그러나 장애가 발생한 순간부터 겪었던 충격이나 분노, 불안, 절망, 원망, 우울, 무기력 등을 비롯하여 장애를 수용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좌절을 극복해 오고 있었다. 이제는 재활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부딪혀야 하고, 자립하기까지 적응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Martz & Livneh, 2016).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빠져 나올 수 없듯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허우적거리다가 더욱 깊이 빠지게 되고, 심지어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 지지체계는

이러한 상태의 장애인이 장애를 수용하기까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지체계는 공식적인 체계와 비공식적인 체계로 나눌 수 있다. 공식적인 지지체계에는 사회보험 등 공적 부조, 국공립 병원이나 보건소 등의 기관, 지역사회 이용시설 등이 있고, 비공식적인 지원체계에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 종교단체, 자조집단, 자원봉사자 등이 있다(Lyons & Zarit, 1999). 본 연구에 참여한 고령 장애인에게는 체력단련이 가능한 시설이 공식적인 지원체계이며,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하는 자들에 의해 형성된 자조집단은 비공식적인 지원체계이다.

주인의식은 참여자들의 이용경험에 따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 장애인들은 흔히 인생에서의 산전수전을 겪었던, 경륜이 풍부한 분들이다. 생의 후반기에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는 체력단련실의 이용 자체가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한 수단이며, 그런 차원에서 체력단련 시설을 갖춘 속한 복지기관은 제2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 그러한 탓에 그들은 가족보다도 직원에 대한 기대가 더 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 그들에게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함께 생활해야 하는 동료 장애인들과 동고동락하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여생을 보내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자조모임의 형성은 친밀감, 장애인으로서의 소통, 희로애락 등을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역시 자조모임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 얻어낼 수 있는 권익추구의 기능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모임은 자조意識의 발전에 의해 그들 나름대로의 이

용 기준이나 규칙이 정해지면서 형성되는데, 시설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이나 규칙 등을 준수하기 못해 다른 이용자와 갈등이 생기거나 이로 인해 모임에 배제되기도 한다. 참여자의 면담내용에 따르면, 이용자들 중 소수는 기득권층에서 밀려나 이용을 중단하기도 했고, 갈등상태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보이지 않은 문제가 추후 표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에 ‘지지체계 및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소통을 통한 자조적인 참여’는 당사자에게도 과제이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주제가 된다.

2) 유형분석

유형분석은 이론의 구축을 위해 자료로부터 가설을 정형화하고, 관계진술문을 근거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관계를 정형화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4). 본 연구에서는 체력단련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 ‘지지체계 및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소통을 통한 자조적인 참여’의 유형은 다음의 3가지, 즉 만족형, 기대형, 및 불만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1) 만족형

만족형에 속하는 참여자들은 체력단련 프로그램의 참여를 매우 중요한 일상과제라고 여기고 있으며, 장애 발생 초기보다 건강이 더 좋아졌고 또 재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재활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주변 사람으로부터 많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서 재

활의 효과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이 용환경이나 편의성에 대해서는 이전에 불편했던 체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서 현재에 만족한다고 느꼈다. 그들은 역시 과거에 대한 애기도 할 수 있다면서 추억이 있어서 좋고, 전반적으로 시설이나 직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집이 있어도 부유한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느끼면서 경제적 인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예를 들면, 점심식사 가격이 일반식당에 비하면 절반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아끼기 위해 도시락을 싸오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불평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없다면서 현재 상황을 대체로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타 체력단련 시설을 이용했던 경험도 언급했는데, 비장애인 체력단련 시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과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곳에 비하면 장애인 복지기관은 너무 좋다고 했는데, 이러한 반응을 보인 참여자들은 사례1, 사례3, 사례4 등 주로 여성이었다.

(2) 기대형

기대형 참여자들은 만족형과 비슷하게 체력단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지속적인 이용으로 건강상태 회복이나 재활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지니고 있었지만, 앞으로 더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또 체력에 대해서는 향상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시설에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서비스가 점차 개선되길 바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참여자들은 사례2, 사례5, 사례6 등이었다. 또 여성 1명과

남성 1명은 과거 이용에 대한 불만사항들을 토로하면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호소했다. 특히 점심식사가 무료로 제공될 수 있기를 호소했는데, 장애인복지관이라면 이러한 부분이 마땅히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의견을 개진했다. 심지어 본인이 기관장이자라면 이 문제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예를 들었다. 기대형의 참여자들은 시설 이용에 매우 만족스러운 편은 아니었지만, 모든 면에서 더욱 발전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연구자들에게는 그들이 시설에 대해서 아주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더라도 다른 곳보다 이곳이 더 좋고, 지역사회에서 의지할 곳이라는 생각에서 지속적인 이용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3) 불만형

불만형의 참여자들은 체력단련프로그램 이용경험을 불만족스럽게 표현했지만, 그 이면에 많은 욕구가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들이 건강해진 것은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매일 이곳을 오가는 이동과정에서 운동효과를 얻었고, 그래서 점점 건강의 회복과 재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남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의 건강을 위해 운동하러 온다고 표현했다. 셔틀이나 심부름센터 차량이용, 시설 내의 승강기 이용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표현했다. 대기실 사용이나 시설환경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워했지만, 만족스러운 점보다 불만족스러운 점을 표출하는 것에 집중했다. 셔틀운행의 노선도 여러 사람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구성되었지만, 자신의 집 앞까지 셔틀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시설이나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표현했는데, 운영적인 부분에 대한 매뉴얼의 필요성, 직원의 불친절, 이용의 안전과 책임성에 대한 구체적인 공지 방법 등을 언급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사례7, 사례8, 사례9, 사례10 등 모두 남성이었으며, 이들은 시설에 대한 관심이 기대형 참여자들 정도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자는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고령 장애인의 체력단련 프로그램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느낌이나 사고, 감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당사자들로부터 듣는 질적 연구를 시도했다.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과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자료 분석은 근거이론방법의 절차를 따랐다(Strauss & Corbin, 1994). 자료 분석의 결과, 개방코딩으로 137개의 개념과 36개의 하위범주, 1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에서는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를 분석한 결과, 인과적 조건은 절망, 신체적 불편, 인근지역 거주, 및 체력단련 프로그램 이용의 필요성 인식이었고, 중심현상은 체력향상이었다. 또 중심현상에 대한 맥락적 조건은 이용환경 및 편의성, 과거 이용 경험, 비장애인 시설 이용경험이었다. 현상을 조작하기 위한 작용과 상호작용전략은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이용환경의 세심한 변화

필요, 시설의 특성화, 직원의식의 변화 필요, 당사자 간의 소통 필요, 사고예방과 인권존중 의식이었으며, 이에 대한 중재적 조건은 지지 체계, 긍정적 기대, 및 경제적 지원 필요로 나타났다.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령 장애인이 처음 경험하는 과정은 재활의지를 형성하는 단계로 장애를 수용하게 되는 삶에 대한 의식의 전환기라고 볼 수 있다. 고령의 상태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장애인이 고령의 시기를 맞이하는 것의 차이가 있지만, 장애와 고령이라는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수용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현실을 수용하고 삶에 적응하는 시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클 것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두 번째 단계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처음 긴장이나 낯설었던 마음이 점차 누그러지게 되면서 이용 자체로부터 즐거움과 안도감을 얻어 재활의 의지가 커지는 시기이다. 이때에는 재활에 대한 높은 의지 때문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만, 한편으로는 프로그램 이용에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다음의 자조모임 형성단계는 이용기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이용자들과 만나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고, 친구나 동료관계를 맺게 된다. 만남이 점점 잦아지면서 동료들과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자조모임을 갖게 된다. 이 시기에는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며, 기득권층이 형성되기도 한다. 집단에 속하지 못한 일부 이용자들은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반감 때문에 이용을 중단해버리기도 한다. 마지막은 이용의 안정단계인데, 개인적으로든 집단에 속해 있든지 이용이 편해지면서 시설

을 제2의 삶의 터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스스로 준수해야 할 규칙이나 기준을 세우게 되면서 주인의식도 굳건해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조적 및 정체성 형성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선택코딩의 핵심범주는 지지체계 및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소통을 통한 자조적인 참여가 추출되었다. 핵심범주의 분석 결과, 이용자는 만족형, 기대형, 및 불만형의 3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만족형은 체력단련 프로그램 이용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는 반면, 기대형은 프로그램 이용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좋아지리라는 희망이나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려고 한다. 한편 불만형 참여자는 의사표현을 할 때마다 불만감을 부각시키는데,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와 기대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은 오히려 만족형이나 기대형보다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재활의 의지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한 참여자들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체력단련 프로그램 이용자인 고령 장애인들이 대부분 수동적이지 아니라 적극적이며, 비장애인 위주의 시설보다 장애인시설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체력단련 프로그램 이용에서 자존감을 잃지 않고 공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소극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찾아가는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시사해주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 장애인의 고충을 고령과

장애라는 이중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역시 장애인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도 고령 장애인을 하나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실시해야 한다. 고령 장애인의 실태나 그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들에게 유익한 복지서비스 방향을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고령 장애인 문제를 개인이 아니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비스를 받는 것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와 사회에 더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주인의식은 당사자주의와 연결되는데, 같은 맥락에서 자기표현과 자기결정권의 확대이기도 하다. 자기표현은 서비스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선택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이웃과 사회에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또 자기결정권이란 프로그램의 주체인 당사자의 의견과 판단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보장되는 권리이고,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셋째,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 복지환경을 더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근래에 들어와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장애인도 고객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값싼 서비스 또는 무조건 베푸는 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는 지났다. 당사자로부터의 의식 전환이 사회통합으로 가는 길이고 정상화 원리에 근접한 인식의 변화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차원의 사고를 지역사회의 비장

애인들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자도 당당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과제이며, 참다운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인식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의 시설에서 비장애인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사회통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환경에서 공급자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과 같은 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머리글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될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장애인지 관점을 도입하여 세계적 추세인 장애인 인권 실현을 비전으로 수립한다고 했다. 특히 제4차 계획에는 당시 이슈가 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의 건강, 노령화 문제와 이동권, 주거권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획이 시대적, 복지 문화적인 이슈 자체로 일시적인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동체의 관심 속에서 시행되어져야 사회통합의 길로 한 걸음 더 쉽게 나아가는 길이 된다.

참고문헌

권중돈 (2011).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김용섭 (2016). 장애와 복지 관점에서의 노인

연령기준. **한국노년학연구**, 25, 59-62.
 김호진 · 최종철 · 양수정 (2013).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경기도 성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신경림 · 조명옥 · 양진향 (2013).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임중호 · 이영미 (2013). **장애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전성남 (2007). **남성노인의 케어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농촌지역 뇌졸중 노인의 배우자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통계청 (2017). KOSIS 국가통계포럼. Available at <http://kosis.kr>.
 홍현미라 · 권지성 · 장혜경 · 이민영 · 우아영 (2013).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서울: 학지사.
 Lincoln, Y.,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lifornia: Sage.
 Lyons, K., & Zarit, S. (1999). Formal and informal support: The great divide.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4(3), 183- 192.
 Martz, E., & Livneh, H. (2016). Psychosocial adaptation to disability within the context of positive psychology: Findings from the literature.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26, 4-12.
 Orb, A., Eisenhauer, L., & Wynaden, D. (2001). Ethics in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3(1), 93-96.
 O'Sullivan, S., Schmitz, T., & Fulk, G. (2014). *Physical rehabilitation* (6th ed.).

Philadelphia, Pennsylvania: F. A. Davis Co.
Strauss, A., & Corbin, J. (1994). Grounded
theory methodology. In N. Denzin & Y.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217-285).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원고접수일: 2017. 10. 10.
수정원고접수일: 2017. 11. 18.
원고게재승인일: 2017. 11. 28.